

<인천살이>

■ 연출 및 지도 : 김은미

■ 출연자 : 김찬주, 박상용, 박종현, 박지연, 오세익, 윤경진, 이현정, 최미자, 한주연

■ 등장인물 : 사장1, 사장2, 사장3, 사장4, 사장2남편, 손님, 차주, 사장5, 사장6, 배달원, 주민반장, 건물주, 심사위원, 목사

노래 1. 인천살이 어떨까요
2. 파리 날려

사장 3(음식점)은 계속 주문 받는 알 수 없어도 되는 행동을 한다.

사장1 : 손님이 여전히 없네요. 아무리 인터넷장사만 잘된다 해도 이 정도였나 싶고, 영업시간 다 풀려도 우리는 여전히 안되네.

사장2 : 우리도 그래요. 정말 월세는 꼬박 꼬박 나가고. 소상공인 대출도 줄서서 받았지만, 어찌되었든 그건 다 빚이 짊어가요.

사장1 : 누가 아니래요.

사장들 허공 보기 3초. 음식점 사장만 계속 알 수 없는 행동을 한다.

사장1 : 저 (가게 상호)사장님 뭐하는 거야?

사장 2: 저집만 대박났잖아.

사장 1 : 그래?

사장 2 : 알바생도 많이 두고 배달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일손 없어 골치래

사장 1 : 아유, 될 놈은 된다더니.

사장 2 : 췌

사장 4 : 여기들 계셨어요?

사장 2 : 아구, 좀 더 버텨보지. 하기사 이런말 무슨소용있어?잘 정리했어요?

사장 4 : 예, 오히려 홀가분합니다.

사장 2 : 그래 잘 된거면 다행이지. 우리도 문단을 상황인데 문닫고 할게 또 모가 있나 싶어서 빗만 쌓이고 있어요,

사장 4 : 모 어떻게든 되겠쥬, 그동안 감사했어요. 두분

사장 1 : 감사는 무슨, 다 같은 상황이고 감사할게 뭐 있어요. 이렇게 빨리 정리할 줄은 몰랐네 아쉬워서 어쩌나.

사장 4 : 가게만 빼는 거고 여기 계속 사니까, 종종 들릴게요

사장 1 : 그래요

사장2의 남편 : (사장 4발견) 아이고, 가시는거예요?

사장 4 :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. (손붙잡고)감사합니다.

사장 2의 남편 : 감사하기는 내가 감사하지. 아무튼 밤에 시원하게 한잔하러 들려요. 응!

사장 4 : 예예

사장 2의 남편 : 당신 내가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을 줄 알았어. 장사안해?

사장 2 : 파리새끼도 안 보이는데 장사는 무슨~ 우리도 그 흠피랑 소셜네트 해야 한다니까

사장4 : 소셜네트워크요. 그냥 에스엔에스라고 하시면 돼요.

사장2 : 역시 학원 원장님은 똑똑하시네 소셜

사장 2의 남편 : 소셜쓰지 말고, 망하고 싶어?

사장4는 망했다는 말에 고개를 숙이고, 모두 사장 4 앞에서 말 실수한 것을 반응하고, 사장1이 서둘러 보내준다.

사장 2 : 으이구, 학원망해서 가는 사람앞에서 하는 말하고는... 그렇게

눈치가 없어서 장사를 어떻게 해?

남사장2 : 눈치로 장사하냐? 성실하게 꾸준하게 손님이 있든 없든.....

사장2 : 알았어요!!!잠깐 나와서 앉아 있는 꼴을 못보네

사장 2 남편 : 나는 물건 정리하고 가게 소독하고.. 이 땀을 봐

사장 2는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등장인물

사장 3은 계속 주문을 받는 액션한다.

사장 5 : 아오~~~~~ 짜증나 (사장1에게 가게이름 혹은) 언니!! 내가
가게 앞에 언니네 간판이랑 다이즘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?

사장 1 : 참나, 또 시작이네. 왜그렇게 깐깐하게 구니?

사장 5 : 깐깐이 아니구, 솔직히 언니가 예!의!가 없는 거야!!!!

사장1 : 예의? 참나. (약올리듯) 니 가게가 좀 쪼그마하니까, 잘 안보이
는 거야~~

사장 5 : 진짜 말하는것도 예의없으시네. 작든 크든 남에 가게 앞에 물
건 두는 거 너무 무식한거 아니야!!

사장 1 : 무식? 너 지금 무식이라고 했어!

사장5 : 했다.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또 그러고 싶냐구 하
루 이틀도 아니구

사장 2 : 그만들 해

사장 2 남편 : (무대 한쪽으로 끌고 나오면서) 당신 신경쓰지마. 당신
할 일이나 해!

사장 2와 남편 무대 전환

사장 5는 복권판매,

사장 1

사장 1 사장 5 무대 양쪽에 서있고

사장1 어디오셨어요?

손님 : 로또사러 왔는데

사장1 : 가게 입구에 차대면 안 되죠. 빼세요.

손님 : 다른 데로 가자. 주차하기 좋~~~은데로 가자!!!

차주 : 그러자 고고고!!

이 광경을 어이 없이 쳐다보면서 로또 사장(5) 씩씩 거리고 사장1은 그
냥 턱을 들고 팔짱을 끼면서 자기 위치로 온다.

사장1, 5 서로 쳐다 본다. 고개를 획 돌리고 나간다.

사장 3 등장 주문 받는 액션 하다가

사장2의 남편 : 아구, 이 동네 돈을 여기서 다 모으는 구만.

사장 3 : 아구. 오셨어요. (숨을 참다가 후 쉬듯 일을 잠시 멈춘다.)

남자사장 2: 아침에 가게 정리 싹~~~~~ 해두면 가게 문 닫을 때까지
싹~~~ 아무도 안와.

사장 3은 뭐라고 해야 할지.. 그저 바라보는 느낌으로 머뭇거린다.

주방장 모자를 쓴 중국집 사장(6)님 등장하면서 집어던진다.

사장 6 : 에이 자장면 몇그릇 팔아서 먹고 사는데 못해 먹겠어.

사장3 : 아니 왜 그러세요?

사장6 : 어떤 놈이 그 배달앱에 리뷰에다가 자장면 양이 작다고 지랄
을 하는 바람에 아이 씨...

남자사장2 : 리뷰?

사장 3 : 배달을 시켜드신 손님들이 맛평가를 어플에 해요. 그때 잘 써
있으면 다른 손님들도 안심하고 시키는 거예요.

(전화보면서) 어, 잠시만요 배달에 문제가 생겼나봅니다. (전화누르면서)
네 손님~~~(무대 뒤쪽으로 간다)

남사장2 : 스마트 어플, 앱 뭐 그런것들..익숙하지 않지.

세상이 좋아지면 편안해야 되는데.....품어주지는 않지.

사장 6 :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.

남사장2 : 많이 바뀌었지. 여기 다 푸른 색이었는데

사장 6 : 형님 우리 진짜 어릴 때 여기서 참 잘 놀았죠.

웃는다.

노래- 내가 술래가 되어

사장2 : 해떨어지는데 여기서 뭐해요. 그 소셜엔에스그거 배워오라니까

사장6 : 아이고 형수님 ~

사장2 : 거기는 장사 그래도 잘되지. 우리는 진짜 큰일이예요. 그 에스엔그것좀 알려줘요.

사장6: 형수님 전 그것 때문에 지금 속이 쓰려요.

사장3과 배달인 등장

사장3 : (물건을 주며) 여기요~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

배달인 : 네,

사장 3과 사장 2: 어~ 학원원장님?

사장6 : 아니. 그 문단은 학원?

배달인 : 네 맞습니다. 일단 빨리 갖다줘야 해서

사장1 : 들어오면서 저 사람 학원원장 아니야?

사장들 : 맞대

사장1 : 어머어머 (사이) 배달이 요즘 돈도 잘벌고 좋다며.

사장2 : 그래? 당신도 학원장한테 좀 배워서....

남사장2 : 아 시끄러워.

주민반장 : 엄머 우리 사장님들 여기 다 모여 계시네.

우리 동네에서 시민노래열창대회가 열리잖아요.

사장1: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?

사장2 : 어머 자기 나가라. 자기 왕년에 가수가 꿈이었잖아.

한명 더 등장 할 수 있음.

사장들 : 나가보세요. 자기를 위한 거야.

사장1, 사장 ? : 그럴까

노래 바람과함께

장면 전환 다른 배우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는 걸 돕는다. 노래가 끝날

때 짬 메달 이나 상금 받기

심사위원 : 우리 마을에 이렇게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분들이 무려 두분이나 계신것에 정말 놀랍습니다. 모두 가수가 꿈이었다고들 하시는데,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, 꿈보다는 현실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..오늘 이 두분의 공동 최우수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에 뜨거운 응원이 되시길 바랍니다.

사장들의 축하

배달원 : 두분도 축하드리고, 우리 사장님 아드님 이번에 시험 합격하신것도 축하드립니다.

다른 사장들의 걱정 담긴 대사

배달원 : 아유 걱정마세요. 이번달 무사하게 빚도 좀 갚았고 수입이 아주 짹짹했습니다. 오늘 제가 시원한 맥주한잔 쏘려고 일마치고 여기 사장님들께 제 환한 얼굴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.

다른 사장들의 대사

건물주: 요즘 너무 힘드시죠? 에휴,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. 당분간 월세를 좀 줄여서 받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모금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나오셨어요.

목사 : 여러분, 힘드시죠? 모금금액과 더불어 가게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

사장 : 저는 교회 안다니는 데, 받을 수 있나요?

목사 : 당연하지요. 힘들때는 종파떠나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요. 인천에서 여러해동안 자영사업하시면서 이번 재난에도 묵묵히 혹은 눈물 흘리시면서 잘 버티셨습니다. 모든 게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, 이렇게 서로 힘든 상황을 알아주는 마을이 되길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

니다. 그리고, 다 괜찮아질 겁니다. 모두 괜찮으시죠? 네! 괜찮아요~~
사장 : 아이구 여기서 살만하네....감사합니다.

노래